

본 작품은 2021년도 영국 Strangers Press 주최 영어권 번역 콩쿨 샘플 번역을
위해 발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완서, 2020

불법 유통 및 복제를 엄격히 금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7

“심사료를 참 많이 주네요.”

시인 함소연이 영수증에 서명을 하면서 말했다.

“많긴 뭐가 많아.”

나는 방금 서명을 끝낸 불펜 꼭지를 송곳니 사이에서 씹다 말고 투명스럽게 말했다. 함 시인은 내 딸 또래의 젊은 시인이었지만 오늘 초면이어서 깍듯이 대했었는데 왜 느닷없이 반말을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역시 정서 불안 증세인가. 어쩌다 손톱이나 불펜 꼭지를 씹는 내 버릇을 보고 내 자식들이 놀리는 투로 붙인 병명이었다.

함 시인의 말대로 3, 40 장 정도의 수기 심사료가 30 만 원이면 후한 편이었다. 광고가 본문의 갑절은 되는 여성지의 경우 예선 도 안 거친 수기의 심사료가 통상적으로 10 만 원이었다. 거기 비하면 깔끔한 예선을 거쳐 읽을 만하게 간추려진 글을 심사위원 둘이서 서너 편씩 나누어 읽고 그만큼 받았으니 후하기보다는 과하다 해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이 잡지는 팔릴 것 같지 않은 교양지였다. 게다가 정부 시책을 합리화시키고 홍보하는 구실을 하는 정부 투자 기관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이었으니 어용을 꺼리는 지식인층은 거저 쥐도 마다할 만한 잡지였다. 공짜인지 강매를 한 것인지 동사무소나 은행 같은 데는 으레 비치 돼 있지만 대중적인 인기나마 있는 것 같지 않은 어중간한 교양지가 앞으로 살아남을 가망 또한 때가 때니만치 여간 불투명하지가 않았다.

때는 6·29 선언이 있고 나서 오랜만에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갖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와 희망이 도처에 팽배해 있을 때였다. 내 심보도 나에게 심사를 의뢰한 잡지의 이런저런 불리한 여건은 아무래도 좋았다. 다만 어용한테서는 아무리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시큰둥 약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잡지사 사장실이 그렇게 으리으리하죠?”

함 시인은 썩새 대리석이 유리알처럼 매끄러운 복도를 패션모델처럼 보기 좋은 걸음걸이로 앞서다가 문득 나를 기다려주면서 말했다. 작년에 내 집 장관방에서 발목을 빼끗한 게 인대가 늘어났다 해서 한 달 남짓 깁스를 하고 고생한 적이 있는 나는 지레 겁을 먹고 벌벌 기고 있었다.

“누가 아니래지.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마음이 있는 친구겠지, 보나마나.”

우리가 심사하는 동안 쓴 장소는 사장실이었는데 잡지사 사장실답지 않게 으리으리하고 권위주의적이었다. 심사 방법은 원고를 합평 전까지 돌려가며 읽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돌아온 원고에서 두 편씩 추려낸 원고만을 그 자리에서 바꿔보고 나서 최우수, 우수, 가작 세 편을 뽑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 두 시간 가까이나 사장실에 머물렀건만 사장 코빼기 도 못 봤을 뿐 아니라 담당 기자 외에는 편집실이 어디 가 붙었는지도 모르게 돼 있었다.

“차나 한잔 같이 하고 가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맞은편이 다방이었다.

“아뇨, 그동안 두 잔이나 마셨잖아요.”

“참 그렇네요. 차 안 가져오셨죠? 제가 택까지 모셔다드릴게요. 방향이 비슷하니까요.”

“차가 있어야 가져오죠. 신경 쓸 거 없어요. 난 시내에 나온 김에 여기저기 둘러 갈 데가 좀 있으니까.”

차 잡기 어려운 시간에 괜한 거짓말을 해서 아까운 차편을 놓치고 터덜터덜 지하철 입구를 찾아 걷기 시작했다. 여직껏 마치 함 시인하고 뭐가 잘 안 맞아 마음이 그렇게 뼈뺌하게 꼬였던 것처럼 혼자가 되니까 한결 편해졌다. 그러나 전철 속에서 나는 다시 손톱을 씹었고 동네 다 와서 장을 보다가 핸드백 속에서 심사료가 든 봉투를 발견하고는 괜히 화가 나고 창피해서, 에라 모르겠다 마구잡이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몇 가지 샀다.

“엄마 또 스트레스 받았나 봐.”

막내딸이 내 시장 보따리를 끌러보며 말했다. 나는 왜 샀는지 설명이 안 되는 충동구매를 하고 나서 곧잘 엄마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니 봐주라는 투의 변명을 해왔던 것 같다. 나는 서양 사람처럼 어깨만 한번 으쓱해 보였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없는 나의 고약한 울분과 수치심은 그렇게 간단히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사흘쯤 지나고 나서였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한가롭게 조간신문을 뒤적이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났다. 딸아이가 냉큼 받더니 나를 불렀다.

“엄마 전화예요. 『앞서가는 조국』 잡지사래요.”

“없다구 그러잖구.”

나는 안 해도 될 소리를 중얼대며 전화를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수기 심사 때의 담당 기자였다.

“선생님 예측이 딱 들어맞았지 뭐예요. 최우수작 당선자가 당선을 없었던 걸로 헤달래요. 선생님 선견지명 덕분에 여벌로 한 편을 더 뽑아놓았으니까 잡지사로선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심사위원 선생님도 알고는 계셔야겠기에 전화드립니다.”

원래는 침착하고 사무적인 담당 기자의 말투가 내 선견지명 에 대한 경탄으로 약간 들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즉각 그걸 경멸로 받아들였고 모멸감을 만회해보려고 허둥댔다.

“아니, 사양한다고 옳다꾸나 그걸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성의껏 권해보기는 했어요?”

“그러므로. 부장님이 현지까지 내려가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설득을 하셨는데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여간 공들여 쓴 글이 아니던데 쓸 때는 언제고 발표하길 싫어할 건 또 뭐람.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나 본데 그 점은 보장해주마고 안심을 시키지 그랬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부장님도 그 수기를 큰 수확이라고 좋아하셨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 애긴 정말이 아니다, 소설처럼 꾸민 이야기니까 수기의 조건을 어겼으니 안 된다고 딱 잡아떼더라니 우린들 어찌겠어요.”

“그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란 건 내가 보장해도 되는데..... 김기자, 혹시 잡지사에서 그런 글 안 실으려고 일부러 일을 그렇게 꾸민 거 아니오? 『앞서가는 조국』이라면 능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잡지 새 시대에 부끄럽지 않게 거듭나려고 요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시면서.”

심사할 수기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도 김 기자는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관변 잡지라는 종래의 잡지 성격에 맞추려는 글 보다는 거기 도전하는 글이 나오길 바란다는 요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에 빠진 자가 검부러기라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듯했었다. 수기 나부랭이로 한번 굳어진 이미지가 쇠신될 리 만무하건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그만큼 불쌍해 보였다. 나 자신 여성 수기를 심사해보고 넉더리를 낸 경험에 비추어 수기라면 신세 한탄 나부랭이 이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건 상금이 파격적이어서인지 예선을 통과한 수기들이 다 놓치기 아까운 수준이었고 소재도 고루 다양했다. 이렇게 수준이 고를 때는 되레 당락이나 1, 2 등을 정하는 데 애를 먹게 마련인데 이번엔 그럴 걱정도 없었다. 최우수작으로 뽑은 「복원復元」은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두 사람 이상의 심사위원이 응모작을 나누어 볼 때 자기에게 돌아온 글이 그저 그럴 때는 괜히 풀이 죽어서 심사에 임하게 되지만 이거야말로 당선작 감이라고 눈에 번쩍 띄는 글을 만났을 때는 절로 신바람이 나게 마련이다. 그래도 걸으로는 시침 딱 떼고 「복원」과 또 한 편을 후보작으로 함 시인 앞에 내놓았고, 함 시인도 그녀가 추려가지 고 온 두 편을 나에게 내놓으며 말했다.

“수준이 고르긴 한데 뛰어난 게 없어서 애먹었어요. 선생님 보신 건 어때요?”

그렇담 「복원」의 최우수작 당선은 때늦은 당상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만 빙긋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뿐 짐짓 무표정하게 함 시인이 뽑은 두 편을 빠르게 속독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큰 거 건지셨네요.”

「복원」을 반쯤 읽다 말고 함 시인이 말했다.

“내가 건지긴. 우리가 건졌지.”

이렇게 해서 「복원」을 최우수작으로 하는 건 쉽게 합의를 보았고 다음 우수작 가작은 한 단계 딱 떨어진 채 비등비등해서 함 시인이 하자는 대로 결정했다. 쪽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그다음 2 등 3 등짜리에 대해선 그만큼 시들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주더니 끝마치고 나니까 인삼차와 과일이 나왔다. 느긋한 시간이었다. 아무리 예상 밖의 좋은 글을 만났다고는 하나 순수문학의 등용문도 아니고 논픽션 부문에서 권위 있거나 알려진 관문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잡지의 수기를 심사한 폰수로는 우리는 너무 만족해하고 있었다. 나의 만족도는 거의 행복감에 가까웠다. 그 까닭을 꼭 집어내듯이 함 시인이 말했다.

“참 세상 좋아졌죠? 예전 같으면 감히 그런 걸 폭로할 엄두를 어떻게 냈겠어요. 그것도 순박한 시골 사람이.....”

그렇다.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건 그럴듯한 당선작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당당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함 시인이 말한 예전은 불과 몇 달 전인 6·29 전을 의미할 터였다.

「복원」은 유신을 전후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때 한 씨족 마을이 교묘하게 저지른 선거 부정 이야기였다. 그 당시 그 작자作者는 그 마을의 이장이었을 뿐 아니라 문중에서 향렬이 높아 머리가 허연 노인들로부터도 대부大父 소리를 듣는 한창 나이의 장년으로 몇백 년을 한결같이 척박한 땅만 파먹고 사는 침체된 마을을 어떡하면 잘살게 할 수 있을까 획기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 마침 문중에서 유일한 대학생의 전공이 축산이어서 그랬는지 젊은이들과 의논해보면 한결같이 내 고장의 살길은 농업에서 목축업으로 전환하는 거였다. 말이 쉽지 보수적인 마을에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체 내의 힘만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운명을 타파할 비전을 주고, 힘차게 밀어주고, 가능하면 앞일을 보장까지 해주는 믿음직한 바깥의 힘을 필요로 했다. 그 힘이 지목이나 수로 변경, 자금 지원 등 마냥 까다롭고 힘 빼는 일까지 대행해주길 바란다면 그 힘이란 마땅히 권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뺨이 되어줄 권력을 목말라할 무렵 선거 때가 되었고 그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시의

여당인 공화당 입후보자에게 붙기로 했다. 붙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마을뿐 아니라 선거구 전 지역에 이장의 친인척은 고루 분포돼 있었으니 친인척 간의 그의 영향력을 아는 입후보자라면 되레 그에게 빌붙는 일에 군침을 안 삼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양쪽은 마치 음양이 끌리듯이 힘 안 들이고 극히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가 먼저 그의 포부를 말하고, 당선되면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자 한 건 말할 것도 없다. 공화당 입후보자는 그의 계획에 전폭적으로 찬동했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걸 조금도 수정하거나 가감함이 없이 그대로 공약 사업으로 내걸어주었다. 그 역시 그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다. 그런 과정에서 입후보자의 인격에 실망하기도 하고 서울서 따라 내려온 판 운동 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오로지 자기 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꼭 참고 일편단심 충성을 다한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그가 미는 입후보자의 복잡한 여자 관계가 소문나 불리해지자 그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여자를 사서 야당 후보에게 버림받아 실성한 행세를 연기하며 선거구를 누비도록 하는 짓까지도 한다. 이렇듯 온갖 위법과 추악한 짓을 닦치는 대로 하고 나서 그걸 상대방에게 씌우기를 여반장으로 했을 뿐 아니라 투표일에는 좀더 실속 있는 부정을 한다. 공개투표, 무더기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 개표 부정 등 자유당 말기에 신문 기사를 통해 그런 못된 짓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던 온갖 수법을 다 써본다. 그러면서 공화당 후보의 운동원이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런 깨달음은 그를 더욱 대담하게 그리고 희망에 부풀게 한다. 그가 미는 입후보자가 당선만 되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자 그가 당선시켰던 자세를 할 새도 없이 국회의원은 서울로 가버리고 공약도 그의 노고도 펑 구워 먹은 자리가 되고 만다. 기다리다 못해 서울까지 찾아가 어렵게 만난 국회의원은 연구 검토 중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정국이 혼미하여 국운이 백척간두에 달린 이때 그런 청탁을 하면 어떡하냐고 노골적으로 귀찮아한다. 속았다는 느낌이 확실해질 무렵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된다. 유신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그가 당선시킨 국회의원의 단명이 고소하기도 한 한편 국운이 백척간두에 달렸다는 말이 참말이었다는 것 때문에 한 가닥의 신뢰감을 버리지 못한다. 유신 시대에 다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같은 입후보자에게 그는 전번과 똑같은 언약을 받고 마치 배운 도둑질 써먹듯이 거침없고도 익숙하게 전번의 그 더러운 방법들을 그대로 써먹음으로써 또다시 당선을 시킨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박완서(문학과지성사, 2020; 발췌 153-161)